

국어연구소

국어연구소 사업 범위와 84년도 사업 계획

I. 사업 범위

국어의 과학적 연구의 뒷받침이 될 자료의 조사·수집, 그리고 연구를 하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국어 정책적인 사업을 위임 받아 이에 기초가 될 자료 조사·수집,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국어의 역사적 변천 자료를 수집 보관함과 동시에 그 내용의 조사·연구를 통해 국어의 語源을 밝힌 어원 사전의 편찬이 역사적 사업으로 가장 큰 일이 될 것이다.

다음은 현재 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조사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연구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국어학을 발전시키는 추진력이 될 것이요,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향상시켜 이 사회를 더욱 안전되고 발전된 사회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구 내용과 방법, 조사 대상 범위에 따라 참으로 많은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먼저 언어 자체의 구조로 보아 음운, 어휘, 문법들로 갈라질 것이요, 지역적으로 방언, 사회적 계층, 연령의 차이 또는 집단적 차이 등에 의한 언어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사 내용과 대상 방법에 의해 수많은 조사·연구 과제가 성립될 것이다. 더구나 국어 교육의 문제까지 포함하면 더욱 범위가 넓어질 것이요, 또 오늘날 우리가 놓여진 정치적 사정에 따라 우리말과 점점 거리가 멀어가는 이북땅의 언어를 부단히 조사·연구하여 통일될 날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II. 84년도 사업 계획

1) 국민 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 학교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의 색인을 작성하고 빈도를 조사 분석하여 어휘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써 각 과목 어휘 분포와 국어 교육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 분석하여 각 과목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각 과목 어휘 분포와 국어 교육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 분석하여 각 과목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 학교 교과서 13과목 70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각 과목별 어휘 색인과 빈도를 작성하되 그 낱말이 나오는 자리를 지적해 준다. 그리고 전 과목 사용 빈도를 자모순과 빈도순으로 작성한다.

이 사업을 현재 산업 연구원(KIET)에 의뢰하여 컴퓨터의 힘으로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장차 국어 조사·연구에 있어 기계의 힘을 빌리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요,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정리하여 금년내 출판할 예정이다.

2) 한자 및 한자어 사용 실태 조사·연구

이 사업의 목적은 현재 일반 사회(80년대)에서 쓰이는 한자·한자어 사용 실태 및 한자 약자 사용 실태와 현대어 시대로 들어오는 1910년대 이후 7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10년 단위)의 사용 실태를 밝힘으로써 각 시대 변천에 따른 수용 양상을 보이고, 그 구체적인 쓰임을 살필으로써, 한자 약자의 사용 양상을 보이며, 아울러 그와 함께 한자·한자어 사용에 따른 국어 순화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정리·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으로 일반 사회에서 쓰이는 한자·한자어 및 한자 약자의 가능한 전반적인 양상을 보여 줄 수 있는 월간 잡지와 6대 일간지를 선정하였다. 먼저 현재 월간 잡지부터 설명하면, 잡지에서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이 171종이 있으나, 그것을 전부 대상으로 할 수 없어 부분별로 선택하여 17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각 한자·한자어 및 한자 약자는 보통명사를 중심으로 표기된 대로 기록하여 분류 통계를 만들되 출처를 밝힌다. 신문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같은 방법을 따르되, 조사 대상의 신문은 각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연구

이 조사·연구도 앞의 한자·한자어 조사·연구와 같은 목적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사·연구 결과를 합하여 내년도에, 서책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4) 정부 수립 이전의 어문 정책에 관한 연구

과거의 어문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문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개화기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이 방면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아직 빈약하여 이에 대한 작업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업은 어문 정책에 관계되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편년체의 語文政策史를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연구를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 두 단계로 나누어 우선 정부 수립 이전부터 시작하려고 하니, 여기서는 日帝時代의 사실이 주가 될 것이다. 韓末의 역사적 사실도 가능한 한 모두 찾아 밝히려고 한다.

5) 「국어생활」 발간

본 연구소의 설립 목표의 하나가 우리 국민의 국어 생활을 바르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본다.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잡지 「국어생활」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各國의 自國語 研究 機關

거의 모든 나라가 自國의 언어를 조사·연구하여 이를 정리하고 또 국민의 언어생활을 지도해 나가는 機構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그중에 西歐에서 프랑스, 東洋에서 日本과 北韓을 소개하기로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아카데미 프랑세즈(프랑스 학술원)의 활동부터 소개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1694년에 최초의 프랑스어 사전을 출판한 이래 1935년까지 8차례 개정 보완해서 발행하여 프랑스어의 指針의 구실을 맡고 있다.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사명은 당대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낱말들을 그대로 사전에 수록하는 일을 해 왔으나, 1958년부터 사전 편찬 작업 이외에 프랑스어의 정화·순화의 작업도 하기 시작했다. 즉 과거 수세기 동안 지켜왔던 언어 사실의 조사와 그의 수록하는 태도에서 프랑스어 순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올리는 낱말에 대해서 그 적당함과 부당함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제 2차 대전 이후 영어 낱말들이 많이 들어와 일상 생활의 언어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1965년 ORTF(프랑스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 상설 기구로 「프랑스어 순화 및 전파 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 언어에서 순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현재 이들 언어의 순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본다.

자기 나라 국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는 機構를 가진 나라는 日本이라 생각된다. 즉 日本은 1948년 國立國語研究所를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이 研究所에 소속된 人員만도 行政職 20名, 研究職 57名, 근 80명에 가깝고, 1년의 예산이 6億엔에 이르는 방대한 기구다.

그 研究 機構를 보면, 言語體系研究部는 日本語의 體系에 관한 科學的 調查研究를 하는 곳으로 文法 體系를 조사·연구하는 第一室과 語彙 體系를 조사·연구하는 第二室로 나누어져 있다.

言語行動研究部는 國民의 言語使用에 관한 科學的 調查研究를 하는 곳으로, 現代語의 表現 및 그의 傳達 效果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第一室과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言語 使用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第二室, 音聲 및 文字에 관한 조사·연구하는 第三室이 있다.

言語變化研究部는 日本語의 地域的, 時代的 變化에 관한 科學的 調查研究를 하는 곳으로, 方言을 조사·연구하는 第一室과 近代語를 조사·연구하는 第二室, 그리고 文獻調查室이 여기 있다.

言語教育研究部는 國民에 대한 국어교육에 관한 科學的 조사·연구를 하고, 言語計量研究部는 컴퓨터를 갖추고 語彙의 計量을 하는 第一室, 文字·表記에 관한 計量을 하는 第二室, 言語의 電算 처리 문제를 연구하는 第三室로 나뉘었다.

그밖에 日本語 教育센터가 있어 自國民에 대한 日本語 教育, 日本語와 歐美諸言語와의 對照 研究, 韓國語 中國語와의 對照 研究들의 研究室로 나누어져 있고, 日本語 教育 指導 普及部가 따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연구소에서 내놓은 業績을 보면, 研究報告書가 77권, 資料集이 약 20권, 國語年鑑이 每年 나오고, 論集이 5권, 日本 全土의 方言地圖, 日本語 教育 教材가 10권, 그리고 日本語 教育 教材 映畫가 30卷 가까이 나왔다.

어떻든 日本의 國語研究所는 우리들이 아는 한 가장 완벽한 自國語 研究所로서 우리들이 장차 國家的 國語 研究 機關을 만들 때 그 機構 또는 事業에 있어 가장 참고가 되는 대상이 된다고 본다.

北韓에선 사회과학원(당 비서국 과학 및 학교 교육부 소속) 안에 언어학연구소가 있어 여기서 국어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인 문제를 결정 추진하고 있다. 격월간지로 「조선어학」이 발간되고 있다.